

투데이 칼럼

산림정책 임업인 소득지원 대폭 확대되어야

1988년 녹지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6월 30일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장수군 산림과 문민섭 과장에게 산림정책에 대한 방향을 물어보았다.

문 과장은 “앞으로의 산림정책은 임업인 소득지원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7.1%가 사유림이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림의 경영 주체인 임업인들이 과거에는 국가의 황폐된 산림녹화 사업에 순응하는데 그쳤지만, 이제는 산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기임산물 재배단지, 산림휴양·치유단지 등으로 임업소득을 높이려는 임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도 산림청과 전국의 지자체의 산림소득



문민섭
장수군 산림과장

분야 예산은 매우 적은 상황이라 말한다. 2021년도 전라북도 산림분야 세출예산 2천5백3십4억원 중 산림소득분야 예산은 1백5십5억 원으로 6.1%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고, 장수군도 올해 1월 보조사업 신청이 많았지만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 상당수가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예산이 부족하면 임업인들은 소득사업을 다음 해로 연기하거나 포기해야만 한다. 일선 시군 산림 공직자들은 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소득사업분야의 수요를 전라북도와 산림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예산 지원이 없어 임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민섭 과장은 2017. 07. 24. 장수군에 발령받고 평소 임업인을 위한 산림소득지원에 대한 국가 예산 확보와 지원정책 발굴에 주력했다. 4년간 산림소득 공모사업 19억원, 임산물 생산지원 15억원 확보했고, 2019년에는 25억 국비 100% 산림신용증 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전국 세 번째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퇴직을 앞둔 그는 그동안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준 아내와 가족들,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무원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오랜 산림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장수군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함께 손을 잡고 임업 현장에서 일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설

군산 어느 임대아파트 주민 불만

군산의 어느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가 공매에 넘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임대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은행은 채권 확보에 나섰다.

아파트 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보증금마저 떼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1천백여 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이다.

지난 4월 한 은행이 140여 가구에 아파트를 공매 매각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를 불법 점유했다며 집을 비워줄 것도 요구했다.

주민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불안하기만 하다.

지난 2018년 해당 아파트를 인수한 어느 건설사는 아파트 140여 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2백억 원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겼다.

이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를 새로 임대하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를 지키지 않고 지난 2019년부터 3월부터 9월까지 140여 가구를 임대 계약했다.

건설사가 제때 돈을 갚지 않자 채권을 확보하려고 공매에 나선 은행은 이를 이유로 임대 계약이 무효라며 입주민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것도, 임대 계약에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 것도 미리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각 세대마다 대출 부분이 있다는 것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건설사 소유분인 만큼 건설사를 믿었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증 보험금과 최우선 변제권, 대항력 등 임차인으로서는 모든 법적 권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주민들은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는 해결책을 찾아 조만간 주민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함께 걷는 바이든 대통령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13일(현지시간) 영국 윈저의 윈저성에서 함께 걷고 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조 바이든 대통령 내외를 런던 인근의 윈저성에 초청했다.

네타나후 이스라엘 총리, 12년 만에 '하차'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새로운 연립정부를 승인하며 극우 정치인 나프탈리 베네트가 새 총리에 취임했으며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였던 베냐민 네타나후는 12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왔다.

야당의 세대교체와 이준석 대표

36세 이준석씨가 '국민의 힘' 당 대표에 취임했다. 벌써부터 2022년 3월 9일 실시될 차기 대통령 선거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대선 과선거권은 40세 이상으로 돼 있는 만큼 이준석 분인은 대통령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이제 보수 정당을 재건할 수 있을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느냐가 분수령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보수 세력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86그룹(80년대의 학번, 60년대생)과 50~70대 대권주자들은 '꼰대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노심초사다.

2030의 실망과 분노는 'LH 사태'로 일제절에 도달했다. 작년 총선 유권자 기준으로 20대는 680만 명, 30대는 699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34%이다.

지금까지는 4050과 중도층 표심이 중요했다. 그러나 차기 대선은 누가 2030세대의 마음을

잡느냐의 싸움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세대교체와 주류교체가 동시에 일어난 건 1970년이다. 1969년 3선 개헌안 통과를 막지 못한 야당에서 인적 쇄신론이 터져 나왔다.

당시 43세였던 김영삼, 46세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외치며 주류교체까지 이뤄냈다. 2000년 16대 총선 맨 여야가 동시에 세대교체에 나섰다.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새천년 민주당이 34세 이종석, 36세 이인영, 38세 이상호를 영입해 총선 후보로 공천했다.

한 해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36세 때 인천 재보선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현재 정치권 주류인 86세대가 전면에서 등장한 시점이다. 이로부터 20년, 이준석 대표의 등장은 주류인 '86 민주화 세대' 퇴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석 현상'이 세대교체를 넘어 주류교체까지 불러올지 주목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